심성의 수양을 통한 인간 운명의 개척
-『성자명출』의 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영수*

- 목 차 -

Ⅰ. 서론
Ⅱ. 성(性)과 심(心)의 관계
Ⅲ. 심의 반성적 판단력
Ⅳ. 심의 지향성
Ⅴ. 심의 수양
Ⅵ. 결론

| 국문초록 |

이 글은 선진유학의 심성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성자명출』의 심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선진유학이 심성 수양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 가도록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인간의 본성은 무규정적인 자연본성으로서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조정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인간을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확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의 작

* 전남대학교 철학과.

용이다. 이 글에서는 『성자명출』의 심에 대해 심과 성(性)의 관계, 심의 반성적 판단력[思], 심의 지향성[志], 그리고 심의 수양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을 통해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은 성의 단순한 표현자가 아니라 본성이 드러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음은 '사(思)'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를 외부사물과의 교섭 속에서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낸다. 마음의 '사'는 인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성적 지각능력이며 이와 동시에 상황에 맞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판단력이다. 또한 마음의 '지(志)'는 외부 사물과의 교섭 중에 형성된 삶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으로서 인간이 자기개발의 방향을 유도한다. 『성자명출』은 이러한 마음의 '사'와 '지'를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예와 악을 제시한다. 먼저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여 확충하고 고양되게 한다. 하지만 음악을 통한 마음의 수양은 반드시 예에 의해서 조절되어야만 한다. 즉 예는 인간의 지나치게 고양됨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의 '사'는 인간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하게 되며, 마음의 '지'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성자명출』은 이러한 마음의 수양을 통해 본성의 끊임없는 확충 할 때 인간은 개인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본질주의적인 인간본성에 의거하지 않고도 인간이 어떻게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성리학적 인성론과 다른 유학의 도덕철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성자명출(性自命出), 심(心), 성(性), 사(思), 지(志), 예(禮), 악(樂)

Ⅰ. 서론

심성론은 중국 고대철학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과 관계되어 있다. 심성론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이 세계에서 인간의 위상은 어떠한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음을 통해 어떻게 본성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1] 다시 말하면, 심성론은 중국 고대철학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의 중의 하나이다.[2] 이 글에서는 선진유학의 심성론 있어서 인간 본성의 실현에 관건이 되는 심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은 중국 고대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설문해자』에서는 "심은 사람의 심장이다. […] 인간의 몸 가운데 있는 것이다"[3]라고 하여 심을 인간의 신체기관의 하나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고대철학에 있어서 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4] 다시 말하면 심은 인간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신체기관이자 감정과 욕망 그리고 의지와 사유능력 등 인간의 정신적 기능들을 대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5] 이러한 심은 중국 고대철학에 있어서 인간이 본성[性]의 실현을 통한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자의 경우 『논어』에 '심' 자는 여섯 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안연의 마음이 삼 개월 동안이나 인을 벗어나지 않았다"[6]라고 하여 심을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의지로 표현하고 있다. 맹자

1) 梁濤, 『郭店竹簡與思孟學派』,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148쪽 참조.
2) 몽배원, 이상선 역, 『중국심성론』, 법인문화사, 1996, 19쪽 참조.
3) "人心. […] 在身之中."(염정삼, 『설문해자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545쪽 참조)
4) Antonio S. Cua., *Encyclopedia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2003, p.795~797 참조.
5) 벤자민 슈월츠는 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 그 자체가 의지, 감정, 욕망 그리고 (합리적, 직관적) 지성 모두의 중심이라는 바로 이 사실은, 마음이 이러한 모든 정신적 기능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논쟁 대부분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벤자민 슈월츠, 나성 역,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 1996, 268쪽)
6) "其心三月, 不違仁"(『논어』「옹야」)

는 심에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본성[四端]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심은 이러한 도덕 본성을 발현하고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적 자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7]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한한 욕망일 뿐이며, 이러한 욕망의 조절을 위해서는 심의 사유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8] 이처럼 심은 선진유학의 심성론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도덕실천을 가능케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관건이다.

이 글에서는 20세기에 발견된 죽간 자료인 『성자명출』에 포함되어 있는 심성론의 심 개념에 다루고자 한다. 『성자명출』은 공자로부터 맹자, 그리고 순자로 이어지는 선진유학의 심성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인간의 본성을 '희(喜), 노(怒), 애(哀), 비(悲)' 등의 감정의 기로 말한다는 점에서 송대 성리학과 다른 새로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송대 성리학이 인간 존재 자체가 도덕적인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는 본질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성자명출』은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 기능을 통해 본성의 발전 방향성을 유도하고 조절하면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자명출』의 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선천적 도덕본성이 아닌 후천적 경험과 교육에 의해 가능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자명출』의 심에 대한 연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 성(性)과 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 본성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심을 통해 드러나며, 심은 성(性)의 단순 표현자가 아닌 일정한 방향성을 통해 성을 실현해 나감을 밝힐 것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심의 '반성적 판단력[思]'에 대해 살

7) 정영수,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범한철학』 제48집, 2008. 3, 39~45쪽 참조.
8) 앤거스 그레이엄,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새물결, 2001, 453쪽 참조.

펴보고, 셋째 인간의 자율적 의지의 드러남인 심의 '지향성[志]'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인간의 본성의 실현에 관건이 되는 심의 반성적 판단력과 지향성을 예악을 통해 어떻게 키워나가고 조절해 나가는지 밝히고자 한다.

Ⅱ. 성(性)과 심(心)의 관계

『성자명출』은 인간의 "본성[性]은 명령[命]으로부터 나오며, 명령[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9]라고 하였다. 『성자명출』은 『중용』 첫 구절의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본성이라 한다"[10]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이 하늘의 명(命)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성자명출』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유래한 인간의 본성은 송대 성리학자인 주희가 『중용』의 첫 구절을 해석하면서 "본성[性]은 바로 리[理]이다. […] 사람과 사물이 태어남에 각기 부여 받은 리를 얻음으로 인하여 건순(健順)·오상(五常)[11]의 덕이 있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본성이라는 것이다"[12]라고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 발현의 방향성과 의미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성자명출』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릇 인간의 성이 주된 것이 되지만 외부사물이 본성과 교섭 작용을 해야만 일어난다. 쇠와 돌로 된 악기가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13]

9) "性自命出, 命自天降."(『성자명출』) 『성자명출』의 저본으로는 "李零, 『郭店楚簡校讀記』,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을 사용함.
10) "天命之謂性"(『중용집주』 1장)
11) 건(健)은 양(陽)의 덕이고 순(順)은 음(陰)의 덕이며, 오상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가리킨다.
12) "性, 卽理也. […] 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중용집주』 1장)
13) "凡性爲主, 物取之也. 金石之有聲, 弗扣不鳴."(『성자명출』)

『성자명출』은 인간의 본성이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14] 인간의 본성이란 주희가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인간이 태어난 이후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자명출』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자체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15] 이러한 『성자명출』의 본성 개념은 『논어』의 "(인간이 태어날 때는) 본성이 서로 가깝지만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지게 된다"[16]의 성 개념과 일치한다. 『논어』와 『성자명출』에 보이는 본성 개념은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향성으로 간주되지만 그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재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본성을 '기원' 혹은 인간이 실현해야 '목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외부세계와의 교섭의 과정을 통해 그 방향성이 재조정되는 과정 자체로 본 것이다.[18] 『성자명출』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외부세계와의 교섭 속에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말하고 있다.

---

14) 『성자명출』은 외부세계의 본성에 대한 영향을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본성은 혹은 외물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혹은 받아들고, 혹은 충실해지고, 혹은 엄숙하게 되고, 혹은 단속하고, 혹은 길러지고, 혹은 자라난다[凡性, 或動之, 或逆之, 或實之, 或逆之, 或出之, 或養之, 或長之]"라고 하였다.

15) "『성자명출』의 본성을 기존의 유학자들이 해석해왔던 것처럼 선·악의 관점에 의해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후대의 성리학이 성을 리(理), 즉 인의예지로 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완결된 형태로 태어날 때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성자명출』은 성을 정해져 있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정영수, 「선진유학의 인간본성론」, 『범한철학』 57집, 2010. 9, 68쪽)

16) "性相近, 習相遠"(『논어』 「양화편」) 『논어』의 이 구절에 대해 김용옥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현상태를 과정론적으로 기술한 명제라는 측면에서 『성자명출』의 성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용옥, 『도올논어』 3권, 통나무, 2008, 497쪽 참조)

17)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는 앤거스 그레이엄, 데이빗 홀, 그리고 로저 에임즈 등이 있다.

18) 로저 에임즈, 장원석 옮김, 『동양철학, 그 삶과 창조성』, 유교문화연구소, 2005, 211쪽 참조.

즐거움[喜]·노여움[怒]·슬픔[哀]·비탄감[悲]의 기가 성이다.[19]

『성자명출』은 인간의 "감정은 성으로부터 생겨난다"[20]라고 하여 인간의 감정이 본성의 실질적인 상태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가 외부사물의 교섭을 통해 희노애비의 감정으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희노애비의 감정은 모두 인간의 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성자명출』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심을 말하고 있다.

> 무릇 인간은 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정해진 방향이 없으며, 외무 사물과의 교섭을 기다린 이후에 일어나며, 기뻐함을 기다린 이후에 행하며, 습을 기다린 이후에 고정된다.[21]

인간은 모두 자연적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를 가지고 있지만, 심이 고정된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기다린 이후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은 비록 심을 통해 드러나지만, 심은 도리어 고정된 방향이 없으므로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22]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가 구체적인 희노애비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 마음의 특정한 기능 때문이다. 인간의 심은 외부세계와의 교섭 중에 단순히 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에 의해 성의 드러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인간은 비록 성이 있지만 심이 취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무릇 마음에는 지(志)가 있어서 더불어 하지 않음이 없으니, 심은 홀로 행할 수 없으니, 입이 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23]

---

19) "喜怒哀悲之氣, 性也."(『성자명출』)
20) "情生於性"(위의 책)
21) "凡人雖有性, 心無定志, 待物而後作, 待悅而後行, 待習而後定."(위의 책)
22) 梁濤, 앞의 책, 149쪽 참조.

인간의 심에 아직 성향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성은 심을 통해 발현되지만 그 방향성은 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조정된다. 즉, 인간의 심은 지속적인 외부사물과의 교섭 관계 속에서 일정한 성향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심이 일정한 성향을 가지게 되면, 심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성은 단독으로 드러날 수 없고, 또 심이 성에 대해 지배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심이 성의 단순한 표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심이 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성향이 애초에 고정불변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외부사물과의 교섭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성이 완성된 상태로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어난 이후에 형성해가는 것처럼 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성향과 방향을 형성해 간다.

『성자명출』에 따르면 심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심은 특정 방향으로 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고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고 변해가는 것이다. 둘째, 심은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통해 자신만의 특정 경향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경향성에 의해 성의 드러남의 방향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심은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자명출』의 심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선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발견했던 맹자의 심 개념과는 그 출발점이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의 드러남에 있어서 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맹자 철학에 있어서 심은 도덕적 자각능력[思]을 통해 자신이 타고난 선의 경향성을 자각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24] 순자의 심 개념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에 대해 사유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25] 순자는 이러한 심에 의해 인간

23) "人之雖有性, 心弗取不出. 凡心有志也, 無擧不可. 心之不可獨行, 猶口之不可獨言也."(『성자명출』)

24) 맹자는 "귀와 눈은 도덕적 자각능력[思]이 없어서 외부사물에 가려지니, 외부사물이 귀와 눈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이끌려 갈 뿐이다. 마음은 도덕적 자각능력이 있어서, 도덕적 자각능력이 발휘되면 얻고 발휘되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갈 뿐이다"라고 하여 심의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맹자』「고자」상 참조)

25) 순자는 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이 어떻게 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심 때

사회의 도덕적 행위 규범인 예와 의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이 타고난 본성인 끝없는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26] 『성자명출』, 맹자, 순자는 각각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본성의 드러남에 있어서 심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Ⅲ. 심의 반성적 판단력

『성자명출』은 "사람은 비록 성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취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심이 인간본성의 드러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심은 인간본성을 '취함[取]'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낸다. 심의 '취함'이란 본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의 기능이다. 이 심의 취함의 기능은 본성의 무엇에 대해 작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심은 '사(思)'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가 구체적인 감정인 희노애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심은 성향에 의해 본성의 드러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심의 성향은 성의 드러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본성을 드러나게 하지는 않는다. 먼저 『성자명출』의 심의 '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무릇 근심스러운 것은 생각을 거친 이후에 슬픔이 일어나게 하고, 무릇 즐거운 것은 생각을 거친 이후에 기쁨이 일어나게 한다. 무릇 생각함의 쓰임은 마음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곧 생각함의 의미이다.[27]

문이다", "심이 도를 인식한 후에 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도라고 할 수 있은 후에 도를 지킬 수 있고 도가 아닌 것은 금할 수 있다."(『순자』「해폐」)

26) 벤자민 슈왈츠, 앞의 책, 408쪽 참조.

27) "凡憂思而後悲, 凡樂思而後忻. 凡思之用心爲甚. 懸, 思之方也."(『성자명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는 외부세계와의 교섭과정에서 심을 통해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난다. 심은 '사'의 기능을 통해 '희노애비의 기'가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인용문에서 '근심스러운 것'이란 인간이 처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은 '사'의 과정을 거쳐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의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를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의 '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심의 '사' 기능은 각각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만 조금씩 다를 뿐 선진유학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 인간의 능력이다. 『논어』에서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령되게 되고,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28]라고 했는데, 이곳에서의 '사'는 새로운 경험적 사실의 유입은 없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반추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연하게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맹자』에서는 "귀와 눈의 감각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며, […] 심의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바른 견해를 얻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한다"[29]라고 했는데, 이곳에서의 '사'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가능성을 자각하는 자각능력으로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의식의 내적 반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판단능력을 의미한다.

『성자명출』에서 '사'는 인간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는 심의 능력으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의 반성적 지각능력임과 동시에 상황에 맞는 감정을 선별하여 표출하는 심의 판단력이다. 심의 '사'는 단순히 즉각적으로 외부의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외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포섭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감정을 드러내도록 돕는 심의 사유능력이다. 더 나아가 심의 '사'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적 판단력으로 넓혀지게 된다.[30] 왜냐하면 심의 '사'는 인간의 감정을 각각의 상

28)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논어』「위정」)
29) "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맹자』「고자」상)

황에 맞게 발현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생겨나게 되며,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의 '사'는 그냥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논어』의 '사' 개념이 배움을 구체화 시키는 심의 사유능력이라면 『맹자』의 '사' 개념은 인간본성의 도덕적 본성을 자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심의 자각능력이자 판단력이다.[31] 이런 점에서 『성자명출』의 '사' 개념은 배움을 심화시키는 사유능력으로 '사'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논어』보다는 더 확장된 것이다. 또한 『성자명출』의 '사' 개념이 인간의 본성의 드러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맹자』와 유사하지만 『맹자』의 '사' 개념이 도덕적 본성에 대한 자각능력과 판단능력인 것과는 달리 인간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반성적 지각능력이자 판단력이다.

Ⅳ. 심의 지향성

『성자명출』에 의하면 성의 드러남은 반드시 심을 통해서 드러난다. 심의 드러남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성의 드러남을 일정하게 유도한다. 이러한 심의 방향성을 『성자명출』에서는 '지(志)'라고 하였다. 유학에 있어서 '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먼저 '지'는 『논어』에서 "도에 뜻을 둔다"[32]라고 하고, "학문에 뜻을 둔다"[33]라고 하여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도와 학문과 같은 배움에 대해 뜻을 두는 주체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맹자』에서는 "지는 기를 이끄는 것이다"[34]라고 하여 이 몸에 가득 차

30) 丁原植, 『楚簡儒家性情說硏究』, 萬卷樓, 2002, 157쪽 참조.
31) 정영수,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41~42쪽 참조.
32) "志於道."(『논어』「이인」)
33) "志于學."(『논어』「위정」)
34) "志者, 氣之師也."(『맹자』「공손추」상)

있는 기를 조절하는 심의 의지로 보았다. 이처럼 선진시대 유학에서 지가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이나 인간 몸의 기를 이끄는 의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성자명출』의 지 또한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몸의 기를 유도하는 심의 지향성이다. 이러한 심의 지향성은 인간의 심이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다.

> 무릇 마음은 지향성이 있지만 (심이) 거동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35]

심의 '지'란 '마음이 향해 가는 곳'[36]을 의미하며, 이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과 외부사물과의 교섭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심은 외부사물과의 교섭 중에 일정한 성향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성향이 바로 '지(志)'이다. 이러한 마음의 성향이 확고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 심의 지향성이 된다. 이 심의 지향성이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심의 성향을 삶 속에서 확고히 하면 삶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으로 나아간다.[37]

심의 지향성으로부터 삶의 지향성으로의 이행은 습관의 형성을 통해서 생겨난다. 심의 지향성은 일시적인 심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성자명출』은 "반복적인 습관을 형성한 이후에 (심의 지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하여 심의 지향성이 습관의 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습관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습득되고 계발된 성향이다"[38] 이처럼 심의 지향성은 습관을 통해 방향

35) "凡心有志也, 無擧不可."(『성자명출』)
36) 주희는 '지(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志者, 心之所之也].(주희, 성백효 역,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34쪽)
37) 주희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학이라는 것은 대학의 도이다. 이러한 도에 뜻을 두게 되면 모든 생각이 여기에만 있게 되어 실천하는데 싫증남이 없을 것이다[此所謂學, 卽大學之道也. 志乎此, 則念念在此而爲之不厭矣]."라고 하였다.(위의 책, 34쪽)
38) 로저 에임즈, 『동양철학, 그 삶과 창조성』, 112쪽.

성을 지니게 되지만 이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설정된다는 의미에서 비결정적이며 과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39]

이러한 심의 지향성은 애초부터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 『성자명출』은 심의 지향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맹자의 심 개념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선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향한 경향성을 사단(四端)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맹자가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마음의 선한 경향성을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이해하며 도덕적 잠재력을 잘 키워나가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자명출』에서도 심의 지향성이 외부사물과의 상호교섭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후천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맹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자명출』은 맹자에서와 같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선한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외부세계와의 상호교섭을 통해 형성되므로 심의 지향성 또한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미 특정 방향을 향해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마음의 방향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가진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형성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40] 이처럼 인간은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통해 마음을 넓혀가고 이를 통해 심의 지향성 또한 재조정하는 것이다.

39) 위의 책, 113쪽.
40) 위의 책, 38쪽 참조.

V. 심의 수양

『성자명출』은 인간이 심의 '사(思)'와 '지(志)'에 의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과 무관한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는 선천적인 선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심의 기능이 잘 발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심의 기능이 잘 발휘되어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인가?

>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성이 같지만 그 마음을 씀이 다른 것은 교육 때문이다.[41]

모든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본성적인 측면은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성자명출』에서 말한 '마음 씀[用心]'이란 인간의 마음의 조절 작용과 운행을 말한다. 즉 '마음 씀'이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인간 마음의 '사(思, 반성적 판단력)'와 '지(志, 지향성)'를 말하는 것이다. 『성자명출』은 이러한 마음의 '반성적 판단력'과 '지향성'에 의해서 인간이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 씀'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한 사람이 받은 교육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마음 속에 덕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42] 즉, 교육이란 인간 마음의 '반성적 판단력'과 '지향성'이 잘 발현되어 인간의 본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통해 '마

41) "四海之內, 其性一也. 用心各異, 敎使之然也."(『성자명출』)
42) "敎, 所以生德於中者也."(위의 책)

음 씀'이 잘 운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 순임금과 요임금 때의 옛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무왕 때의 음악은 뜻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4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심과 성은 외부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움직이게 되며, 특히 심은 '사(思)'의 작용을 통해 외부사물을 감지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심의 움직임은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가장 그 효과가 탁월한 것은 음악이다. 『예기』「악기」에서는 "무릇 소리의 일어남은 인간의 마음을 말미암아 생겨난다. 인간 마음의 움직임은 외부사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외부사물에 느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에 나타나고 소리가 서로 응하기 때문에 변화를 낳는다. […] 음악이라는 것은 음(音)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물건에 대하여 느끼는 데에 있다"[44]라고 하여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기』「악기」에서는 음과 마음의 감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감정이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에 나타나며, 소리가 드러나니 이것이 음이 된다"[45]라고 하였고 인간은 "외부세계와 교섭을 통해 마음이 감하여 움직이게 되다"[46]라고 하여, 음악의 소리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므로 마음은 음악에 의해 촉발되고 감응하게 되어 능동적인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음악을 통해 마음을 흥기시킴으로서 마음의 기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음악이

43) "凡古樂動心, 益樂動指, 皆敎其人者也."(위의 책)
44)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 在人心之感於物也."(이민수 역, 『예기』, 혜원, 2007, 413쪽)
45) "凡音者, 生人心者也. 情動於中, 故形於聲, 聲成文謂之音."(위의 책, 414쪽 참조)
46) "感於物而動."(위의 책, 417쪽)

인간의 마음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흥기시킴으로서 절제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자명출』은 예를 통해 마음을 조율할 것을 말한다.[47]

예는 정에서 일어나나, 흥기된 정에 대해 절제를 가한다.[48]

예라는 것은 한 문화의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 규율하는 규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의 양상을 의미한다.[49] 『성자명출』은 이러한 예의 근간 또한 인간의 감정이라 말하고 있다. 예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진실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진실한 감정을 근거로 절도를 잃은 감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예기』「악기」에서는 "예는 백성의 마음을 절도 있게 하고 음악은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50]라고 하여 예와 악에 의한 인간 감정의 흥기와 조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51] 예의 인간 감정에 대한 조율 작용은 결국 마음의 움직임 즉 '사'와 '지'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악을 모두 잘 익힌 것을 '덕이 있다'라고 말한다."[52] '덕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잘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 마음의 기능을 기르는 과정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예와 악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인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예악의 통한 인간 마음의 수양의 과정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47) 정영수, 「선진유학의 인간본성론」, 78~80쪽 참조.
48) "禮作於情, 或興之也."(『성자명출』)
49) 미조구찌 유우조 외 편저, 김석근외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문화문고, 2003, 454쪽 참조.
50) "禮節民心, 樂和民聲."(『예기』, 418쪽)
51) 이와 유사하게 『관자』「심술」하에서도 "본성을 잃는 까닭은 반드시 지나치게 즐거워하고 노여워하기 때문이다. 노여움을 절제하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고, 즐거움을 절제하는 데는 예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음악과 예를 통해 지나친 감정의 조절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김필수 외 역, 『관자』, 소나무, 2006, 520쪽)
52) "禮樂皆得, 謂之有德."(『예기』, 416쪽)

『성자명출』은 “본성을 넓히는 것이 도이다”[53]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넓히는 과정 자체이자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자체이다. 다시 말하면 도란 인간 사회의 인륜도덕의 원칙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길인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도의 추구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조절을 넘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배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도를 추구해 간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확충해 가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이며,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에 대한 조절로부터 시작하여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로움을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Ⅵ. 결론

심성론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주제로 한다. 이러한 심성론은 선진시대로 이후로 중국철학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선진시대 유학의 심성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자명출』의 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송대 성리학자인 주희가 ‘심통성정설(心統性情說)’에 의해 인간의 마음을 본체[體]인 성(性)과 작용[用]인 정(情)으로 나누고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도덕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54]으로 본 것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은 무규정적인 자연본성으로서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조정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주희의 본질주의적인 심성론과 달리 인간의 자연 본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인간을 교육시킬

53) “長性者, 道也.”(『성자명출』)

54)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성은 본체이고, 감정은 작용이며, 본성과 감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性是體, 情是用, 性情皆出於心].”(『주자어류』, 98권) “마음은 혼연한 것으로 성은 이 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정은 이것이 동하는 것이다[心是渾然底物, 性是有此理, 情是動處].”(『주자어류』, 98권)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확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의 작용이다. 『성자명출』의 심에 대해 이 글에서는 심과 성(性)의 관계, 심의 반성적 판단력[思], 심의 지향성[志], 그리고 심의 수양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을 통해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은 성의 단순한 표현자가 아니라 본성이 드러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음은 '사(思)'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본성인 '희노애비의 기'를 외부사물과의 교섭 속에서 구체적인 감정으로 드러낸다. 마음의 '사'는 인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성적 지각능력이며 이와 동시에 상황에 맞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판단력이다. 또한 마음의 '지(志)'는 외부사물과의 교섭 중에 형성된 삶에 대한 총체적인 지향성으로서 인간이 자기개발의 방향을 유도한다. 즉 마음은 '사'의 작용에 의해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지향성에 의해 인간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자명출』은 이러한 마음의 '사'와 '지'를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예와 악을 제시한다. 먼저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여 확충하고 고양되게 한다. 하지만 음악을 통한 마음의 수양은 반드시 예에 의해서 조절되어야만 한다. 즉 예는 인간의 지나치게 고양됨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의 '사'는 인간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하게 되며, 마음의 '지'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성자명출』은 이러한 마음의 수양을 통해 본성의 끊임없는 확충할 때 인간은 개인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본질주의적인 인간본성에 의거하지 않고도 인간이 어떻게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자명출』의 심성론은 성리학적 인성론과 다른 유학의 도덕철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성자명출(性自命出), 심(心), 성(性), 사(思), 지(志)

| 참고문헌 |

원전 및 주석류

黎靖德 편, 『朱子語類』 1-8, 中華書局, 1994.

劉補楠 撰, 『論語正義』, 中華書局, 1999.

李學勤 主編, 『論語注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 1~3, 北京大學出版社, 1999.

李零, 『郭店楚簡校讀記』,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주희, 성백효 역,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4.

주희, 성백효 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주희, 성백효 역, 『대학·중용집주』, 전통문화 연구회, 1991.

미상, 이민수 역, 『예기』, 혜원, 2007.

미상, 김필수 외 역, 『관자』, 소나무, 2006.

논저류

김용옥, 『도올논어』 1~3권, 통나무, 2008.

뚜 웨이밍, 정용환 역, 『뚜 웨이밍의 유학강의』, 청계, 1999.

로저 에임즈, 장원석 역, 『동양철학, 그 삶과 창조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몽배원, 이상선 역, 『중국심성론』, 법인문화사, 1996.

미조구찌 유우조 외 편저, 김석근외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문화문고, 2003.

벤자민 슈워츠, 나성 역,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 1996.

염정삼, 『설문해자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앤거스 그레이엄, 나성 옮김, 『도의 논쟁자들』, 새물결, 2001.

프랑수아 쥴리앙, 허경 역,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한울, 2004.

陶磊, 『思孟之間儒學與早期易學史新探』, 2009.

杜維明 主編,『思孟學派新探』, 北京大學出版社, 2008.
梁濤,『郭店竹簡與思孟學派』,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楊朝明,『儒家文獻與早期儒學研究』, 齊魯書社, 2002.
陳來,『竹帛五行與簡帛研究』, 三聯書店, 2009.
丁四新,『郭店楚墓竹簡思想研究』, 東方出版社, 2000.
丁原植,『楚簡儒家性情說研究』, 萬卷樓, 2002.
Antonio S. Cua., *Encyclopedia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2003.

논문류

정영수,「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범한철학』 제48집, 2008.
정영수,「선진유학의 인간본성론」,『범한철학』 57집, 2010.

<Abstract>

Confucianism's Theory of Xin(心) and Xing(性) In the Pre-Qin Days

- a study for *Xing Zi Ming Chu*'s Xing

Jeong, Young-Su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aims to account for the meaning of Xin(心) in the "Xing Zi Ming Chu"(『性自命出』) of the Guodian text. The text provides a analysis of human nature by relating the issue of concern to xin(心) and qing(情). Xing(性) as inborn nature provides an essential base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ings. The human xing(性) itself, specifically the qi(氣) of happiness, anger, sadness, and grief, are drawn out only with external stimuli and induction by xin(心), which then is referred to as qing(情). When dealing with emotions, the xin(心) is involved in thinking, contemplation, and reflection(si, 思). Si(思) is our cognitive ability and contextual judgement to exert and direct ourselves to acquire and understand the ethical ideals. Xin (心) has a tendency(zhi, 志) in response to external factors. The tendency of the xin(心) does not have a fixed intention. The intention of the mind is the determining factor of the properties of the nature of man. In order to shape a morally cultivated man, his intentions need to be developed properly first. Moral cultivation is a process of activating and refining inborn nature through ritual(li, 禮) and music(yue, 樂). If human being learn the ritual and music, the result will be a harmonious unity of nature and social practice.

key words: Xing Zi Ming Chu(性自命出), Xin(心), Xing(性), Si(思), Zhi(志)

이 논문은 2011년 1월 30일 투고되어 2011년 2월 1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 게재 확정되었음.